

머 리 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2분과 한국측위원회는 2002년 5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발족과 동시에 3인으로 구성되어, 일본측 위원과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글은 그 동안의 제2분과 한국측 연구활동의 성과를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분과회의 구성

제2분과 한국측 위원은 다음과 같다.

연구위원

정구복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겸 대학원장)
조 광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사학과 교수겸 문과대학장)
손승철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 한국측 2분과 간사

공동연구원

한문중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조교수)
박재광 (전쟁기념관 학예연구관)
홍성덕 (전북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장순순 (전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분과회의 담당

제2분과회는 한국사에서는 고려·조선시대(개항이전), 일본사에서는 鎌倉時代부터 江戸時代까지를 대상시기로 했다.

분과회의 활동

1) 연구의 기본방침

한국측위원회에서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5가

지 점을 공동연구의 기본방침으로 정했다.

- ① 한·일관계사에 대해 학자·전문가 간의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 ② 양국간의 학설·해설의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는 분야에 대해 양국에서의 현황을 공동으로 조사·연구한다.
- ③ 공동 조사·연구를 통하여 학설·역사인식에 대해 공통점을 도출하는 동시에, 차이점은 차이점으로서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상호이해와 인식의 심화를 지향한다.
- ④ 연구성과물은 지원위원회를 통하여 제출한다.
- ⑤ 연구성과물을 통하여 학자, 전문가, 교과서집필자 등 관련자들이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장래에 역사교과서가 편수되는 과정에서 활용되어, 교과서문제로 제기된 갈등을 해소하고, 한일 양국민 간의 상호이해가 증진되도록 희망한다.

2) 연구의 진행상황

① 연구 주제 선정

제2분과의 공동연구주제를 일본측과 협의한 결과, 한일외교(위사와 통신사), 임진왜란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누었다.

② 연구 주제 담당

제2분과의 연구주제는 기본적으로 연구위원과 공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하였는데, 주제별로 위사분야는 손승철 위원, 임진왜란분야는 정구복 위원, 통신사분야는 조광 위원이 책임위원을 담당하였고, 손승철 위원이 한국측 제2분과 간사로서 총괄했다.

3)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

제1부에서는 3개의 주제에 관한 연구사 논문을 수록했다. 시기적으로는 1945년 이후, 2004년 전반기까지 한국에서 발표된 문헌(논저 및 각종보고서)을 대상으로 학설사적 관점에서 연구사를 정리했고,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특히 연구사정리를 통하여 세 주제에 관해 한일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문제, 즉 ‘왜구의 구성원’, ‘임진왜란의 침략성’, ‘통신사의 朝貢使觀’ 등에 대한 한국측 연구성과를 소개했다.

제2부에서는 각 주제에 관하여 현재 한일양국에서 학설·해설의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는 분야에 대해, 한국측의 연구성과를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각각의 주제에 관한 연구논문을 수록했다.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한문중 공동연구원, <조선전기 왜인통제책과 그 위반자에 대한 처리> : 조선전기 대일정책의 핵심이 왜구의 금압과 통교왜인에 대한 통제였다는 관점에서, 위사를 통교위반자로 규정하고, 조선전기 한일관계사에서 통교위반자가 차지하는 역할 및 의의를 제시했다.

* 정구복 위원, <임진왜란에 대한 한일양국의 역사인식> : 임진왜란이 종래 한일양국에서 민족주의적 견지에서 연구되어온 바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양국인의 역사인식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전쟁사는 전쟁을 미화시켜서는 안되고 참혹한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홍성덕 공동연구원, <조선후기 대일외교사행과 왜학역관> : 조선후기 기유약조 체결 이후 양국의 외교사행과 그것이 통신사와 문위행으로 정례화하는 과정과 대일외교사행에 있어서의 왜학역관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밝혀, 한일관계사에 있어서 통신사의 선린우호적 성격과 문화교류의 상징성을 강조하였다.

* 손승철 위원, <중근세 한일관계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 현재 한일양국에서 일반인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읽혀지고 있는 개설서 중에 중·근세 한일관계사 부분이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가를 비교·분석하여 학술해석상의 차이를 밝혔고, 차이점에 대한 한국학계의 연구성과를 소개하였다.

각 논문의 뒤에는 발표된 주제논문에 대한 참가자 전원의 합동토론회의 녹취록을 수록했다. 한국측에서는 토론을 통하여 논문의 학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본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제3부는 부록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2006. 6)에서 발표된 조광 위원의 논문을 수록했다. 당시 발표된 한국측 논문 3편 중 정구복 위원과 손승철 위원의 논문은 각기 이미 발표된 논문에 삽입하였다.